볼펜 2자루 값 안치러 '절도범' 손님 손에 국 쏟아 '과실치상'

경찰 '실적쌓기' 마구잡이 입건 … 시민들 범죄자 내몰아

경찰이 지난해 '지역경찰 성과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훈방이나 계도 조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안까지 '마구잡이'로 입건해 애꿎은 시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에서 체포 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넘겨진 피의자들이 혐의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밤 11시께 광주지역 모 대형마트 직원 김모(여·31)씨는 매장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웠다가 '범죄자'가 됐다. 지갑을 주운 다음날인 8일 오후 8시께 현금 3만원이 든 지갑을 고객관리실에 자진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김씨는 마트 측의 신고로 9일 밤 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된 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장모(67)씨는 밭에 있던 고추 지지용 쇠막대기 4개를 뽑아갔다가 '범죄자'가 된 케이스. 장씨는 지난 4일 북구 본촌동 한 고추밭에서 길이 1m의 쇠막대기 4개를 뽑아 자전거에 싣고 가다 순찰 중이던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구대 경찰관은 체포 즉시 장씨를 경찰서로 넘겼고, 경찰은 장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70여년을 전과없이 살아온 장씨의 삶이 시가 4천원 상당의 쇠막대기 4개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장씨가 훔친 쇠막대기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모(17)양은 문구점에서 볼펜 2자루 때문에 '절도범'이 됐다. 지난 4일 동구 대의동 한 문구점에서 구입한 볼펜 8자루 가운데 2자루 값(7천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양은 문구점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붙잡힌 뒤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문구점 주인은 박양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볼펜 값의 100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종업원 전모(여·53)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께 자신이 일하는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손님 백모(35)씨의 손등에 만둣국을 쏟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백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전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서로 붙잡아간 것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뜨거운 국물에 덴 곳은 손등인데 "손바닥을 다쳤다"고 주장한 백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전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했다. 전씨는 다행히 결백을 인정받아 풀려났지만, 난생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 일부에선 이같은 현상이 지구대 경찰관들의 '실적쌓기'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경찰이 지난해 7월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도입한 '지역경찰 성과관리제'가 '무차별 입건'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관리제'는 강·절도범 등 범인 검거 활동을 점수로 환산해 인사고과뿐만 아니라 성과급에 반영하며 포상금과 특진 등의 혜택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적 평가 기준을 입건 건수로 삼고 있어 평가 기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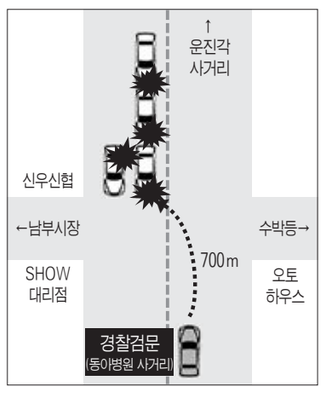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쌀이 좋아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귀경객들에게 소 포장(500g)쌀을 나눠주며 전남 쌀 애용을 당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만취 20대 검문 피하다 4중 충돌 … 8명 중경상

생후 3개월 유아 중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의 검문을 뿌리치고 달아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 등과 4중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생후 3개월 된 사내아기가 중태에 빠지고 차례를 지내러 가던 일가족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께 조선대 방향에서 서구 농성동 방향으로 달리던 양모(29)씨의 옵티마 차량이 광주시 남구 월산동 신우신협 4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농성동에서 조선대 방향 1차선에 정차된 3대의 차량 가운데 맨 앞에 있던 안모(37)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안씨의 아들(생후 3개월)이 앞 유리창 등에 부딪쳐 머리에 부상을 입는 등 일가족 3명을 포함 5대의 차량에 있던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1~2분 전 양씨는 남구 주월동 동아병원 4거리에 정차 중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들어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운지구대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의 검문을 뿌리치고 1㎞를 질주하던 길이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08%로 나타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남대 후문과 광주시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이후로는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귀성·귀경 교통전쟁 없었다

올해 설 명절은 사흘간의 짧은 연휴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됐으나 귀성·귀경길 교통 흐름은 원활했다. 역 귀성 차량이 늘어난 데다 도로 여건도 개선돼 교통량이 분산됐고 인터넷 등으로 교통정보를 파악하고 길을 나선 귀성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15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 영업소 27곳을 빠져나간 교통량은 120만2천대로 지난해 설 96만1천600대 보다 25% 가량 늘었다. 그러나 승용차 기준 서울→광주 최장 소요시간은 7시간40분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단축돼 소통이 원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지·정체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신규 고속도로 및 국도 개통을 들었다.

특히 역 귀성 차량이 늘어난 점도 교통 혼잡을 피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번 설 하루 전(13일) 역 귀성차량은 19만3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5천대 보다 24.9%(4만8천대) 증가했다. 또 고속도로 사정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점도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한몫 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5천t 탱커선 음주항해

해경, 대형사고 막았다

항공유를 가득 실은 5천t 급 탱커선 항해사가 술에 취해 선박을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것을 레이더로 포착한 해경이 제지해 대형사고를 막았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4일 술을 마시고 탱커선 W호를 운항한 항해사 김모(50·부산시 연제구)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14일 새벽 5시10분께 진도 남서쪽 53㎞ 해상에서 술에 취해 5천t 급 탱커선 W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W호의 1등 항해사로 당직근무 중이었던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이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고흥서 50대 익사체 발견

지난 13일 오전 8시55분께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H조선소 앞바다에 정모(50·서울시 용산구)씨가 빠져 숨져있는 것을 낚시객 방모(52)씨가 발견, 여수해양경찰에 신고했다.

설을 쇠러 고향에 내려온 정씨는 이날 새벽 1시까지 고흥군 도양읍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연락이 두절됐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로또 3장 2등 "45년만에 한 풀었다"

쌍나팔

○…45년 동안이나 매주 복권을 구입해 왔던 60대 농민이 최근 구입한 로또복권 3장이 모두 2등에 당첨돼 마침내 소원풀이에 성공.

○…영광에서 농사를 짓는 노모(64)씨는 45년 전부터 주택복권을 시작으로 꾸준히 복권에 '투자'했다가 로또복권이 생기고 나서는 매주 10장씩을 구입해 지난 1월 같은 번호를 쓴 로또복권 3장이 한꺼번에 2등에 당첨돼 1억 4천500만원을 받는 횡재 .

○…"그동안 복권 구입에 1억원 가까운 돈을 썼을 것"이라고 밝힌 노씨는 이번 '행운'으로 자신의 위암 수술과 아내의 허리 수술비로 인한 9천만원의 빚을 일시에 갚고 중고 트랙터(700만원)를 구입했으며 이웃들에게는 음식을 대접.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설 귀성 자식들에 전복 따 주려다 완도 70대 노인 바다에 빠져 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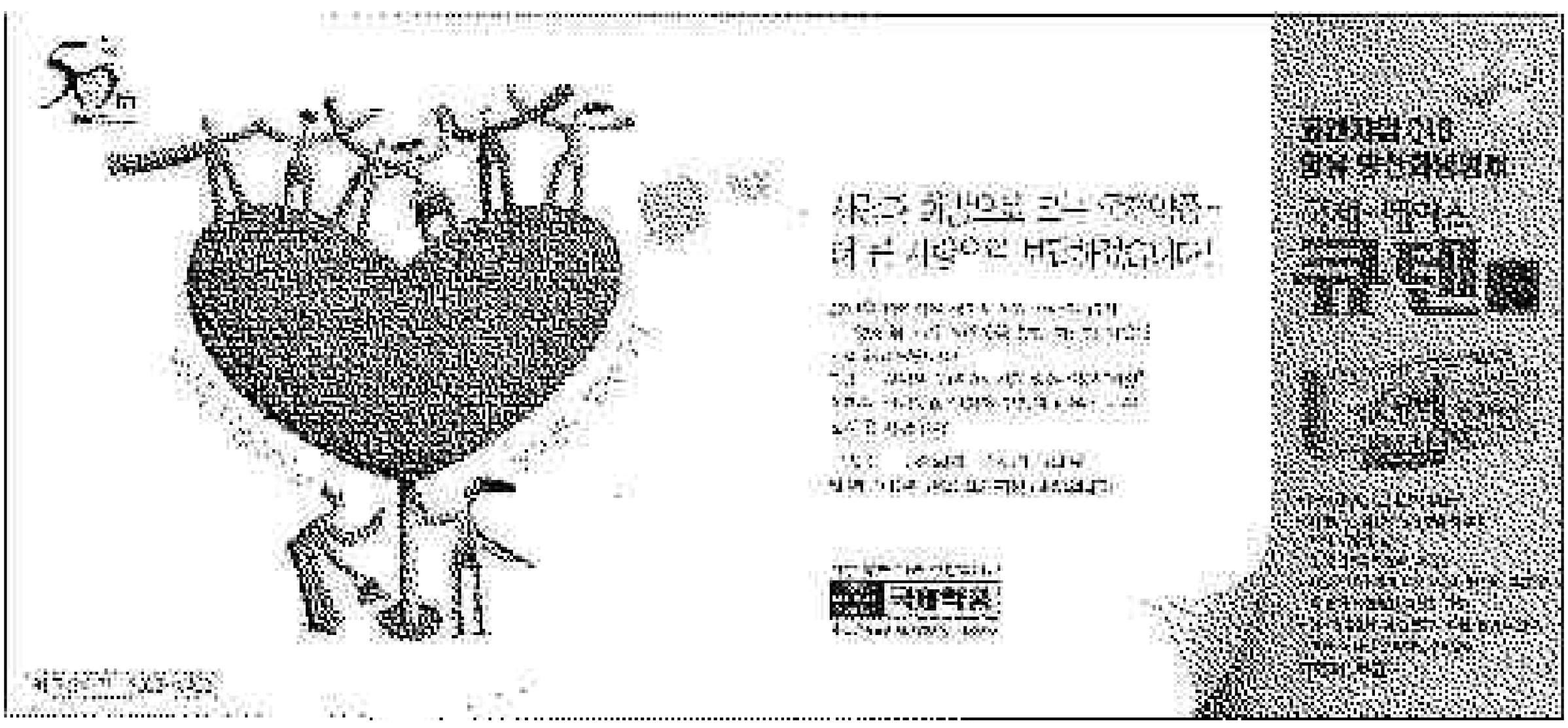
70대 노인이 설을 맞아 고향 집을 찾은 자식들에게 줄 해산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완도군 노화읍 이모(70)씨 부부는 15일 오전 7시께 노화읍 당산리 선착장에서 0.75t급 양식장 관리선을 타고 1㎞ 떨어진 전복양식장으로 향했다. 이날 고향을 떠날 3남매와 손자들에게 줄 전복과 다시마를 따기 위해서였다.

10여 분 뒤 자신의 전복 양식장에 도착한 이씨는 관리선의 밧줄(지름 1~1.5㎝)을 양식장 한 쪽에 느슨하게 묶어놨다. 자식들이 떠나기 전에 전복을 따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 단단하게 매어두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 부부가 전복을 따려고 손을 물에 담그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양식장과 관리선을 연결한 밧줄이 풀리기 시작했다. 당시 완도 전해상에서는 2.7m/s~5.3m/s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를 보던 이씨는 양식장에서 점점 멀어져가던 관리선의 밧줄을 낚아채려다 수심 30~40m의 바다에 빠졌다. 이씨는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김모(56)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